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들, 신안 섬을 형형색색 물들이다

존원, 델크, 빌스...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이 신안 섬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흔히 건축물의 벽면 등에 낙서처럼 굵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그래피티'라 한다. 낙서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모두 그래피티라 하는데 출발은 60년대 미국의 흑인들의 저항행위에서 비롯됐다. 요즘은 80년대 이후 키스 헤링 등의 영향으로 거리의 예술로 자리잡았다.

신안군이 주택이나 공공건물 벽에 예술작품을 그

신안군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압해도에 '그래피티 아일랜드' 추진 美 존원·스페인 델크·포르투갈 빌스 주택·읍사무소 벽면에 예술작품

리는 '그래피티 아일랜드'를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이번 '그래피티 아일랜드'는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압해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작가로는 앞서 언급한 미국 작가 존원을 비롯해 스페인 작가 델크 포르투갈 작가 빌스 등이다.

기존 '1도 1뮤지엄'에는 제임스 터렐, 올라푸르 엘리아손, 안토니 고틀리 등 해외 유명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터렐과 엘리아손은 각각 노대도, 도초도 대지의 미술관 야외에 설치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군이 '1도 1뮤지엄'을 추진하는 것은 1004 섬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신안에는 1025개 섬(유인도 76, 무인도 949)가 있다. 군에서는 이 가운데 15개 섬에 미술관 26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15곳은 기존의 오래된 미술관을 활용하거나 완료한 상태이며 11곳은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그래피티 아일랜드'의 중심지인 압해도에는



신안군은 압해도에 세계적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래피티 아일랜드'를 추진한다. 압해읍사무소에 그려진 작가 델크의 벽화. <신안군 제공>

육지와 여러 섬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곳을 세계적인 작가들로 하여금 색을 칠하게 하는 것은 신안이 예술의 섬이라는 인식과 함께 누구나 그래피티 작품을 보게 하자는 취지다.

최근 열린 '그래피티 아일랜드' 기자간담회에서는 압해도의 그래피티 작품이 일부 공개됐다.

델크는 지난 4일 압해읍사무소 벽면에 달랑개, 쇠제비갈매기 등 갯벌의 생물을 담은 그래피티를 완료했다.

존원은 오는 6일부터 공공인대 주택 벽면을 장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아파트 벽에 작업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프랑스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도뇌르를 수상한 작가로 알려진 존원은 지난 2016년에는 윤종신의 월간 프로젝트인 '월간 윤종신'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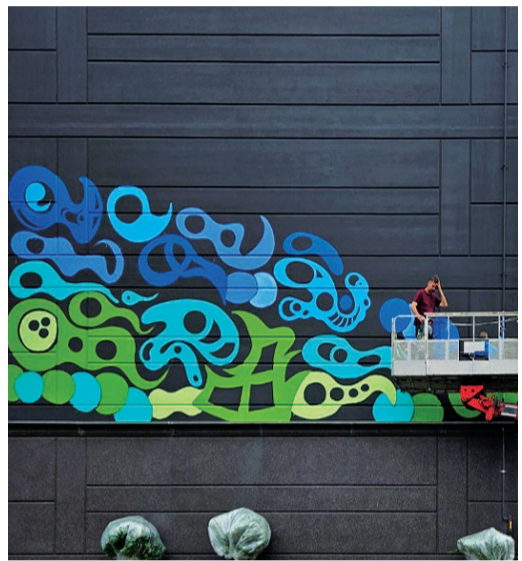
아울러 신안군이 추진 중인 예술섬 프로젝트 중 안좌도의 '플로팅 뮤지엄'은 2025년 3월 개관 예정이다. 말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을 표방한 것으로 일본 작가 야나기 유키노리가 설계에 참여했다. 7개 큐브로 구성된 플로팅 뮤지엄은 오는 11월 작품 설치 및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이 예술을 모티브로 섬 가꾸기에 나선 까

닭은 제한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는 3만8191명이며, 65세 고령인구는 약 40%에 달한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향후 노동인구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

한편 박우량 군수는 "압해읍을 지나면 자는 퍼플섬, 소용문 미술관 등 여러 볼거리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압해읍은 관광인드도 불구하고 경유지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그래피티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는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가 존원의 작품.

강렬한 메시지, 아름다운 작품, 특유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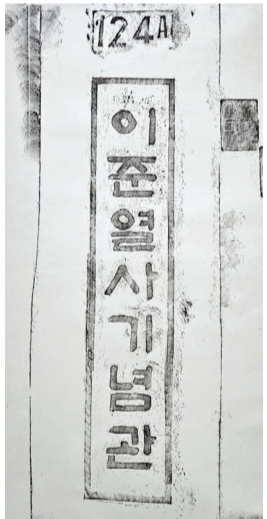
성백 초대전, 28일까지 금봉미술관

성백 작가 작품은 정치, 권력에 대한 풍자를 표현한 작품이 많다. 그의 '던지기 퍼포먼스'는 불의한 시대를 향한 작가의 외침으로 다가온다.

성백 작가가 시화마을 금봉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1층 제1 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는 'Messenger - on the Road'전은 강렬한 메시지와 아름다운 작품이 결합된 특유의 울림을 전한다.

성작가는 지금까지 부산을 기점으로 세계를 무대로 탁본과 영상 퍼포먼스를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퍼포먼스와 영상으로 한 설치작과 다양한 공간을 탁본한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모두 30여 점의 작품은 '길 위에서 전령사'라는 주제로 수렴되는데, 의미가 간단치 않다. 작가는 지금까지 미안과, 홍콩의 민주화 등 국가 권력에 맞서 화염병, 돌을 던지며 투쟁하는 시민들의



한지위에 탁본한 '이준열사기념관'



'Messenger - Sound of KOREA'

모습을 모티브로 창작을 해왔다.

'Messenger - Sound of KOREA'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메시지가 주는 파장이 강렬해 오래도록 주목하게 되는데 한반도를 닮은 매화나무에 붉은 매화꽃이 열린 형상은 언제고 다가올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읽힌다. 매화나무와 꽃으로 형상화된 한반도 지형은 작가가 공에 붉은 물감을 묻혀 던져 표현한 것이다.

무엇보다 누워있는 사람의 복부 위로 작은 나무가 뿌리를 내린 작품은 충격적이면서도 이색적이다. '전령사-한국의 소리'라는 제목은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돼 평화로 상징되는 나무, 하나의 거대로 상징되는 나무를 살뜰히 키우자는 의미로

다가온다. 한편으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은유하기도 한다. 작가의 목소리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메시지가 겹쳐져 있다.

성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그동안 나의 두드림과 단점의 행위는 역사의 그들처럼 길 위에서 진행됐으며 그 길 위의 역사를 만나고자 했다"며 "이는 긴 투쟁의 역사를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작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등 다수 개인전, '부산전위예술을 기록하다' 전 등 다수의 그룹전, 퍼포먼스 국내외 초대전에 참여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출신 배우 '장선'의 필모그래피



영화 '사인' 스틸컷.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13일 '장선 배우전' 특별상영

배우 '장선'이 출연한 독립영화들을 만나는 특별 상영전이 열린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 '장선 배우전'이 바로 그것.

광주 출신인 배우 장선은 영화 '소통과 거짓말'을 통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사인'에서 주연(라파엘라 수녀 역)을 맡았으며 그동안 '몬 크리트 유토피아', '빅브라더', '비밀의 언덕'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 왔다.

행사는 오후 1시에 '창진이 마음', '빅브라더', '디-데이', '프라이데이' 등을 감상하는 장선 단편선으로 막을 연다. 이어 오후 2시 50분부터는 지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겨울나기'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10분부터는 박석영 작 '사인'을 상영한 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 장선, 박석영 감독을 만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진행은 '사인' 프로듀서이자 지역영화진흥에서 활동 중인 이세진 프로듀서가 맡는다.

영화 '사인'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외로워하는 열여섯 '예선'이 스탈라-라파엘라 수녀를 만나면서 웃음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예선은 여섯 살 아이 '새별'을 우연히 만나 보호 본능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별을 버렸던 친엄마가 예선 앞에 나타나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상훈 이사장은 "독립영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는 광주 출신 배우 '장선' 작품을 만나는 특별전을 기획했다"며 "영화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고 배우, 감독을 직접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관람료 1만원.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탈리아 거장들의 클래식 하모니

양상블 칸타빌레 특별기획

22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프랑코페리니', '벤스타인'이 낳은 이탈리아의 거장들을 광주에서 만난다.

양상블 칸타빌레(대표 김은민)가 특별기획 '세계적 거장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이탈리아의 거장 마에스트로 잔루이지 잠피에리, 2019년 이후 두 번째 내한 공연을 선보이는 팸플루티스트 안드레아 키라, 지역 음악가 첼리스트 김황균 등이 협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레스피기의 '고풍적 무곡과 아리아 제 3 모음곡'으로 막을 연다. 이어 '녹턴'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차이코프스키 작 '6개 소품중 4번'을 첼리스트 김황균이 연주한다. 김 첼리스트는 전남대 음악학과(첼로) 및 동대학원(지휘)을 수료했으며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받았다.

이어지는 '베니스의 총재'는 아르방의 곡이며 / 안드레아 키라의 팸플루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디니쿠의 '호라 스타카토', 차이코프스키 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번호.48'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양상블 칸타빌레' <양상블칸타빌레 제공>

오스트리아 린츠 음대 교수인 키라는 현재 '클래식 팸플루티스트 중 '클래식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솔리스트 베네티, 필라르모니치 디 로마를 비롯해 프라하 심포니, 비엔나 심포니 등과 협연 경력이 있다.

지휘는 오르가니스트, 오페라 코치 등으로 활동하며 세계적 거장들과 협연했으며 현재 페루자 국립음대 교수,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교수 등을 역임한 마에스트로 잔루이지 잠피

에리가 맡는다. 현재 레스피기 북원 사임을 이끌고 있다.

양상블칸타빌레 김은민 대표는 "안드레아 키라는 2019년 내한 당시 프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이후 이번 공연이 한국에서 두 번째다"며 "레스피기 북원 사업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클래식 거장과 함께 레스피기 곡을 연주할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했다.

전석 3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대회'

8월 9일까지 접수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다. 지역에는 긴 역사만큼이나 찬란한 문화 유산이 곳곳에 산재한다. 선조들의 열과 정신이 깃든 문화 유산은 오늘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내일의 문화를 꽃 피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연다. 오는 8월 12일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우리 문화유산을 그림으로써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동일 연령 청소년)이면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오는 8월 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300명까지 가능.

작품은 심사위원단이 창의력, 묘사력,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해 으뜸상, 배금상 9명 및 솜씨상, 꿈나무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대회 입상작에 대한 전시도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광주박물관에서 40여일간 전시가 펼쳐진다.

이애령 관장은 "어린이들이 미술과 문화유산을 매개로 창의력과 상상력, 미래에 대한 꿈을 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